

報道參考資料

電 話	미주팀
	강문성 팀장
	3460- 1050

美國 테러事態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및 對應

2001. 9. 13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 目 次 >

1.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	1
가. 소비심리가 관건	1
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및 정책적 대응	4
다. 시나리오별 전망	5
2. 국제원유가 동향 및 전망	8
가. 동향	8
나. 전망	9
3.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11
가. 동향	11
나. 전망	12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5
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5
나. 대응방안	16

1.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

가. 소비심리가 관건

- 2000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음.
- 미국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소비심리인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그나마 미국경제를 지탱해오던 소비지출이 둔화된다면 미국경제는 어려워 질 것임.
- 지난 5, 6월 반등에 성공하였던 소비자신뢰지수는 7, 8월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미국경제의 회복에 불안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소비자신뢰지수 동향



□ DRI-WEFA는 이번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소비자신뢰와 금융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DRI-WEFA 보고서는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경제적 영향을 개괄적으로 전망하고 향후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수정함.

□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9.11사태는 조기에 급속히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고 사태의 해결 및 조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에는 경제활동이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사태 지역에 집중된 금융권의 업무 마비, 소비심리 냉각, 여행 감소에 따른 영업활동 저하 등의 요인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보안 및 안보에 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여 보안, 건설, 컴퓨터 및 통신 부문에 대해 상당한 투자 및 지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분기별 경제전망

- DRI-WEFA는 현재 3/4분기가 거의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9.11사태가 3/4분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3/4분기 실질GDP증가율을 당초 1.3%에서 1.0%로 하향 수정.

<표 1> 미국 테러사태 이후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전망

(단위: %)

	2001 1/ 4	2/ 4	3/ 4	4/ 4	2002. 1/ 4	2/ 4	3/ 4	4/ 4
실질GDP	1.3	0.2	1.0	0.5	2.2	3.5	3.8	4.5
소비지출	3.0	2.5	1.8	0.9	2.4	3.4	3.2	3.7
내구재	10.6	7.1	-0.6	-6.2	10.7	8.9	8.6	5.9
비내구재	2.4	0.4	2.4	2.9	1.5	3.0	2.8	3.6
비주택고정투자	-0.2	-14.6	-9.7	-4.6	-0.6	2.1	7.6	6.2
설비 및 소프트웨어	-4.1	-15.1	-11.7	-4.3	3.7	4.4	9.9	10.1

주: 2001년 2/4분기까지는 실제수치이며 이후는 전망수치임.

자료: DRI-WEFA

- 그러나 소비자 및 기업심리, 주가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4/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실질GDP증가율은 0.5%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
- 특히 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급락(-6.2%)하면서 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DRI-WEFA는 내년 실질GDP증가율도 2.4%에서 2.2%로 수정하였으며, 정부 및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사태 수습정도에 따라 2002년 2/4분기 이후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이러한 전망 역시 이번 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만을 고려한 것인바, 미국이 취할 조치의 전개방향에 따라 미국경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 및 정책적 대응

-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국정부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모으고 있음.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로 인한 금융 인프라의 훼손정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백업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금융시스템의 마비상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번 테러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준리는 금융권에 필요자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 연준리는 지난 1987년 10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 미국의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이미 금년 7번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던 연준리는 예상치 못한 이번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오는 10월 2일 이전 정규 FOMC회의 이전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유동성 제고를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음.

다. 시나리오별 전망

- 미국경기 전망은 이번 테러사건에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좌우될 것 인바, 크게 조기에 수습되는 경우와 장기화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이번 테러의 배후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라덴 (Osama bin Laden)인바, 미국이 특수부대의 투입 등에 의해 테러 배후세력을 조기에 진압하여 사건이 조기에 수습되는 경우가 첫 번째 시나리오임.
 - 이번 사태해결이 장기화되거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두 번째 시나리오임.

<표 2> 시나리오별 전망

	시나리오 I: 조기수습	시나리오 II: 장기화 또는 전쟁 발발
미국경기전망	· 올 4/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 경기회복 불투명
외환시장	· 달러화 반등 (엔화 및 유로화 약세)	· 달러화 약세 지속
주식시장	· 미국경기 조기회복 기대로 인해 전세계 주식시장 동반상승	· 미국 및 세계경제 침체로 전세계 주식시장 동반하락
금리	· 주식시장 회복에 따라 투자자금의 이동으로 금리상승	· 안전자산인 채권수요증대로 금리하락
국제원유가	· 배럴당 25달러 내외 (두바이유 기준)	· 단기: 배럴당 32달러 이상 급등 · 사태해결 후: 배럴당 25달러 수준에서 안정 (이상 두바이유 기준)

1) 시나리오 I: 조기 수습

□ 이번 사태의 배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되고 수습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기존의 올 4/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이번 사태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나, 시나리오 II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뉴욕지역 및 미국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됨.

- 1999년 기준 뉴욕주의 생산규모는 미국 전체 실질GDP의 8%(약 7,300만 달러, 실질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9.11사태가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임.

-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 소매 및 유통업 등 가게의 철수와 영업정지, 공항통제에 따른 상업활동 억제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9.11충격에 의한 소비지출 감소는 단기에 그칠 것이며, 9.11사태가 미국의 경기침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9.11사태로 미국경제는 당장 3/4분기에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소비지출하락에 따른 미 경기침체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9.11 충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나리오 II: 장기화 또는 전쟁 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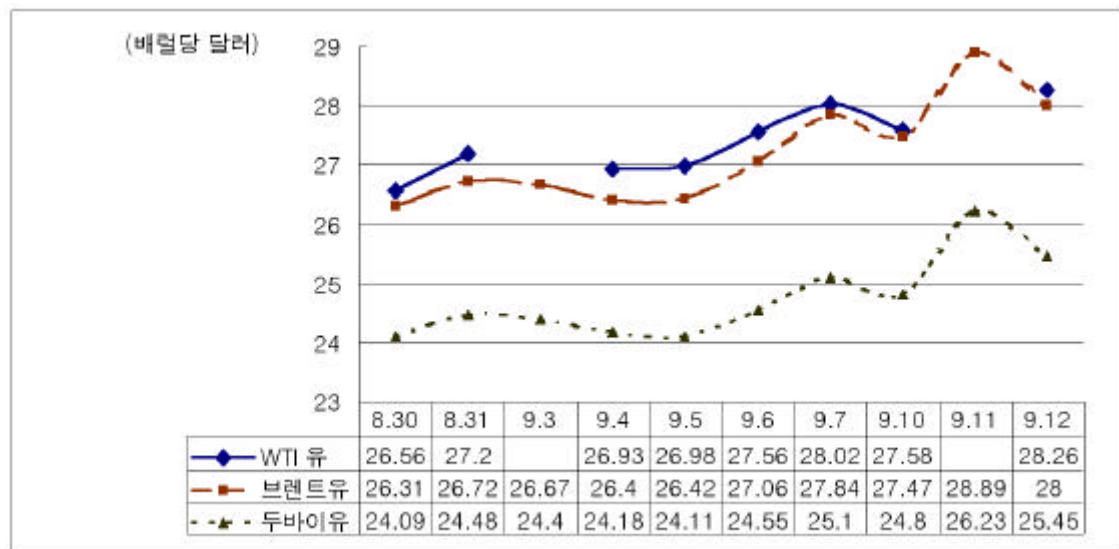
- 이번 사태의 해결이 장기화되거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소비자들의 공황심리가 만연해지고 금융시장 마비가 장기화되어 미국의 경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어 경기침체에 빠질 것임.
-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고되면 소비자들의 공황심리가 확산되어 소비가 하락하고 투자 역시 침체되어 업종을 불문하고 미국경제 전체가 침체될 것임.
-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미국의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여 재무부 채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재무부 채권과 더불어 석유, 금 등과 같은 현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국제원유가 및 금값이 상승해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어 지속될 것임.
-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경제의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 심지어 2003년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2. 국제원유가 동향 및 전망

가. 동향

- 미국 주요도시에 대한 테러 사태 이후 11일 급등세를 보인 유가는 12일 현재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음.
- 11일 한 때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에서 북해산 브렌트油 10월 선물은 전일대비 3.6달러(13.1%) 상승하여 31.05달러에 달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을 되찾아 12일 현재 28.02 달러에 장마감 하였음. 브렌트유 현물가는 28달러에 폐장하여 9월 11일 이전 일주일 평균가격인 27.04달러보다 0.96달러(5.2%) 높은 수준임.
- 두바이油 가격도 전일 대비 0.78달러 내린 25.45달러에서 폐장하였음. 이 가격은 9월 11일 이전 일주일 평균 가격 24.55달러에 비해 0.9달러(5.3%) 높은 수준임.
- 뉴욕상품거래소(NYMEX)는 테러 사태 후 폐쇄된 상태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장외에서 28.26달러에 부분적으로 거래됨. 이는 11일 이전 일주일 평균가인 27.41달러보다 0.85달러(3.1%) 높은 수준임.
- 미국 테러사태 이후 중동 공급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급등한 유가는 테러사태 이후에도 석유 수급에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급속히 안정되고 있음.

<그림 2> 최근 국제유가 동향



주: 9월 3일은 미국의 노동절 휴일, 11일 이후 테러사태로 NYMEX 휴장하였으나 WTI 현물은 장외에서 부분적으로 거래됨.

자료: 한국석유공사.

- 테러사태로 NYMEX가 휴장한 가운데 개장한 런던 IPE에서는 비정상 매입(panic buying)이 나타나 한때 브렌트유가 31달러를 넘는 등 1990년 걸프전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장세를 연출했음.
- 그러나 테러사태 이후 OPEC 지도자들이 국제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석유시장을 안정시켰음.

나. 전망

- ☐ 향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보복 수위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두바이유 기준 25불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단기 유가변동의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은 테러배후의 확인과 이

에 따른 미국의 보복 수위인데,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단기 유가의 변동이 결정될 것임.

1) 테러의 배후에 일부 중동 국가가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 미국이 해당국가와 전면전을 벌일 경우

○ 이러한 경우 중동 원유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걸프전때와 같이 32달러(두바이유 기준) 36달러(브렌트유 기준)의 유가 폭등이 전망됨.

2) 테러의 배후가 일개 단체로서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 만약 어느 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보복 공격은 소규모 국지적일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미국의 보복 공격이 있더라도 원유 공급선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장기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 유가 상승 요인

○ 미국의 난방유 및 원유의 재고 감소와 동절기 석유 성수기가 도래한다는 점

2) 유가 하락 요인

○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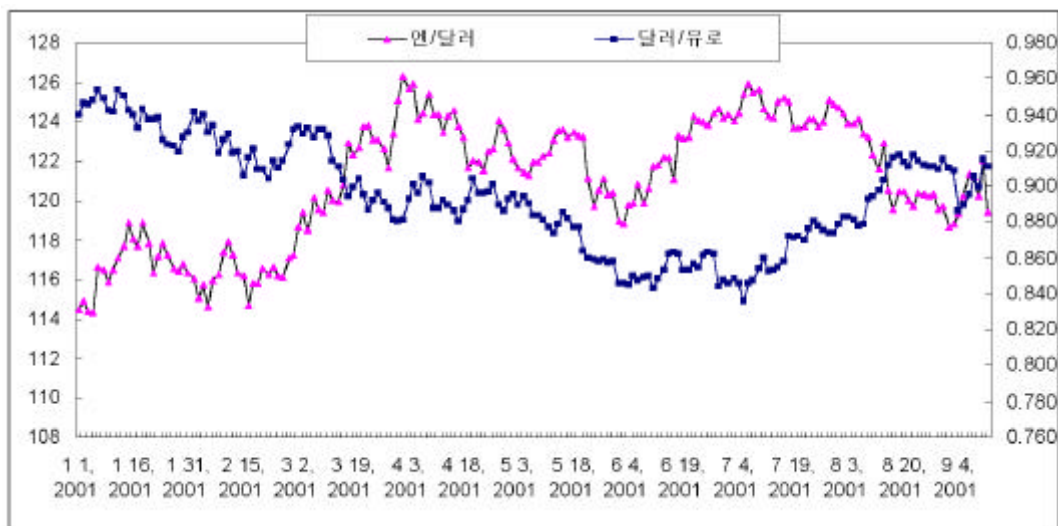
○ OPEC의 감산 가능성보다 증산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의 지지는 주로 OPEC의 감산에 의존해 왔는데 석유수입으로 보나 시장점유율(현재 40%이하)로 보나 더 이상의 감산은 OPEC이 감내할 수 없을 것임.

3.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가. 동향

- 미 테러사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미국의 모든 금융시장이 폐쇄되어 현재 거래 자체가 중지된 상황임.
- 사건 직후 유로화는 1999년 1월 출범한 이후 7번째로 큰 수치인, 1.86% 상승하여 유로당 0.91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Flight to Safety (안전자산으로의 이동)현상으로 유럽 상품시장이 폭등하고 있음.
- 엔달러 환율은 11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전망소식으로 인하여 달러당 122엔까지 상승하였지만, 테러사태 소식이 전해지면서 12일 달러당 119.24엔으로 하락함.

<그림 3> 엔/ 달러 및 달러/ 유로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한편 원화환율의 경우 7일 연속 상승하여 11일 달러당 1295.8원을 기록하였으나, 사건의 여파로 하락하여 12일 달러당 1286원을 기록하고 있음.
- 사건 직후 한국의 KOSPI 지수는 개장 후 3분만에 12.01% 하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Circuit Break(일시매매중단조치)가 발동되어 20분 동안 거래가 중지되었음.
- 한국의 주식시장이 개설된 이후, 1일 낙폭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주식시장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였음.
- 일본의 Nikke이지수는 미 테러사건 직후 682.86포인트(6.63%) 하락하였으며, 동남아 시장과 남미시장도 동반 추락하였음.
- 그러나 유럽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소폭에 그침.

나. 전망

- 이번 미 테러사태는 향후 달러화의 가치에 기간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기적으로 달러화는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일 것임.
- 지난 몇 년 동안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서도 달러화 강세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경제를 대신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유럽이나 일본 경제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둘째, 군사적, 경제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의 입지가 강화되어, 안전 자산을 선호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테러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달러화 자산으로부터의 자금이탈로 달러화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달러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원화환율도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적으로는 금번 사건이 조기 수습되고 내년에 미국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경우 달러화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원화환율은 하락세 후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통화가치는 궁극적으로 각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데, 여전히 미국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달러화의 가치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미 테러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미국경기의 조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전망도 암울한 상황임.
- 미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미 기업의 매출과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결국 주가 하락을 수반할 전망이다.
- 미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하고 있는 나라, 특

히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며, 공장가동률과 기업수익률을 악화시켜 결국 주식시장도 침체될 전망이다.

- 또한 테러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국제자금의 흐름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자금의 한국시장으로의 유입이 감소될 전망이며, 그로 인한 주가의 하락도 예상된다.

□ 주식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채권가격의 상승과 채권이자율의 하락이 예상된다.

- 미 채권시장의 휴장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고, 급격한 주가폭락으로 인하여, 단기금리인 3개월 국채금리가 장기금리인 10년 만기 국채보다 하락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 3개월 만기 US \$ Libor 금리의 경우 12일 0.2%p가 하락하였고, 유럽 Libor금리의 경우도 0.07%p 하락하였음.

- 한국의 경우 미 테러사건 직후 3년 만기 국고채는 0.02%p 상승하여 5.18%p를 기록하였고, 회사채는 0.01%p 상승하여 6.59%p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정부가 미국경기의 침체 지속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침체도 깊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으므로,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 따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이 좌우될 것인바, 사태가 악화될 경우 수출 하락,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 등이 예상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임.
-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된다면 단기적인 악영향은 존재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임.

<표 3> 시나리오별 영향

	시나리오 I: 조기수습	시나리오 II: 장기화 또는 전쟁 발발
한국경기전망	· 올 4/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 경기회복 불투명
주식시장	· 미국 주식시장과의 동조화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나, 일부 부실기업 처리가 변수	· 주식시장 침체
수출	·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존재할 것이나 미국경기회복에 따라 수출 회복	· 미국 및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 급감
물가	· 중동의 긴장고조가 없는 한, 국제원유가의 안정으로 수입물가 안정	· 국제원유가 상승에 의해 물가 압력 고조 · 경기침체와 더불어 스테그플레이션 현상 직면

-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어 한국의 제일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임. 또한 달러 약세 및 유가 급등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한다면 수출기업의 채산성 역시 악화되어 기업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동지역이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고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국제원유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 등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침체될 것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제고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나. 대응방안

1) 기본 방향

-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경기부양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대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2) IT수요 창출 방안

□ IT제품 수요창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전개

- 선진국,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은행 등이 협력해서 개도국의 IT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는 등, IT 제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한 IT제품의 수요활성화 방안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PEC 경제위원회(EC) 의장이 제안, 호응을 얻은바 있음.
 - 오는 10월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제안사업으로 상정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의 5대 IT강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IT허브 구축

- 금번 미국의 테러사태를 세계 IT산업의 중심지를 미국에서 아시아로 옮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기회로 활용토록 함.
- 지난 4, 5일 일본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5개국 IT관계자와 벤처경영인, 지방자치단체 책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e실크로드 컨벤션’을 개최하였음.
 - 일본의 삿포로, 한국의 대전, 중국의 선양과 선전, 인도의 벵골,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 아시아의 주요 정보기술(IT) 집적도시를 연결하는 기술·인재·자본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키로 함.

□ 전략지역으로서의 동남아

- 개도국의 IT 인프라 확충

□ 국내 IT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개도국의 IT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비교우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표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기술표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IT 제품은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동남아 지역의 IT산업 발전 및 IT제품 수요 확충을 위해서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동남아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지원기금 형성이나 ODA 지원이 필요함.

- 정보화 지원은 개도국의 IT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IT 인력교류 확대, 개도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보급 무상지원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 동아시아 공동의 신사업모델 개발

□ 동 테러사태로 인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안관련 IT 제품의 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우수한 보안관련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던바,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정밀기술과 공격적인 경영능력, 세계적인 사업망을 인도의 기초과학 지식과 결합한다면, 전세계 보안사업의 선두로 나설 수 있을 것임.

□ 대안시장으로서의 남아시아

-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 납품

□ 인도는 미국, 유럽 등지의 값비싼 하드웨어보다는 품질 좋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제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인도로의 하드웨어 수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임.

- 특히 반도체 · 통신기기 · 컴퓨터(PC) 등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IT 주요 수출품목은 인도에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들임.

- 합작기업설립을 통한 인도 및 제3국 진출

□ 인도는 하드웨어 산업이 매우 취약한 것과 동시에 하드웨어 완제품 및 부품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여 현지 합작생산, 기술도입을 매우 선호함.

-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IT Park, STPI(Software Technology Park) 등의 소프트웨어 전용 수출단지와 더불어 EHTP(Electronics Hardware Technology Park) 라는 가상의 IT 하드웨어 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시도하고 있으나, 하드웨어의 발전이 매우 부진하여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임.

□ 또한 인도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에 의해 영업을 시작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인도정부는 PC보급, 통신인프라, 인터넷 이용자 등 정보통신기반이 열악하여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전용선 구축 등 민간자본을 통한 사업확대

를 적극 권유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인도정부는 외국인현지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지분제한 철폐 등 각종 조치를 발표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이 한층 용이해졌음.

□ 나아가 한국산 하드웨어와 인도 소프트웨어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이룩한 시너지효과를 십분 활용하여 제3국 수출 등으로 사업을 확대, 양국 IT산업의 전략적제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 지역별 수출확대 방안

가) 중국지역

□ 중국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수출둔화가 전망됨에 따라 인프라 건설을 비롯하여 각종 내수부양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는 소비심리가 살아나 소비재 소매거래량이 10.3%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각종 건설자재 및 건설장비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구입 및 교육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韓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을 단순히 생산기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향후 중국의 WTO 가입으로 내수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중국을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판매시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대중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이 될 것임.

나) EU 지역

- 미 테러로 인해 유무선통신망의 보완·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바, 이는 EU 지역에도 예외가 아님. 同 통신업종 (특히 통신 장비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미 테러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중기적으로 오히려 유무선통신망의 보완 및 강화라는 이유로 우리의 對EU수출에 긍정적일 수 있음.
- 미 테러 사태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유럽경제를 견인하는 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이며 이것은 소비자 및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의 對EU 수출기업들에게 금번 미 테러가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르는 수입수요 저하일 것이며 적어도 소비자 및 역내 기업들의 신뢰회복까지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장기침체국면으로 돌입하지 않는 한, 역내교역비중이 높고(65%) 대외의존도가 낮은 EU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점에서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전망은 그다지 부정적이지만은 않음.
- 2000년 1월부터 한국의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EU의 관세인하와 2000년 7월부터 40여개의 농·공산품에 대한 잠정적인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는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EU의 관세장벽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유럽의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인 E-Europe 등으로 IT분야에 대한

對EU수출전망이 밝은 편임.

다) 러시아

□ 이번 對美 테러사건의 여파로 고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의 수출시장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유망 시장중의 하나임.

- 1997년 우리의 금융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급격히 축소되었던 우리의 對러 수출은 러시아의 경제활성화에 힘입어 2000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전환됨.

- 특히 1997~99년 수출이 대폭 축소되어 우리의 對러 수출부진을 주도하였던 가공식품, 편직물, 가전제품 등에 대한 러시아 시장의 수요가 최근 들어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

□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러시아의 구매력 상실을 우려, 이 지역에 대한 수출마케팅 인프라를 선진권 시장으로 대폭 이전시켰는바, 선진권의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다시 對러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다시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우리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권 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음.

- 1998년 이전에 비해 최근 對러 수출품목의 구조는 일부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기계·장비류의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對러 수출확대전망은 매우 밝음.
- 금년 1 7월 우리의 최대 對러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이며, 유선통신기기 및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우리의 對러 수출이 전기·전자제품과 섬유류에 집중되어 있던 때와 대비됨.
- 최근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韓·러간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 및 완화문제에 대해 양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이를 우리의 對러 수출확대전략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4) 금융시장 유동성 확보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임.

5)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

- 대외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수요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집행, 조세감면 범위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함.

6) 안정적인 석유공급 확보

- ☐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해 중동지역 중심의 원유공급을 탈피하고 전쟁발발에 대비하여 석유비축을 증가시켜야 할 것임. 원유공급선의 다변화를 위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시베리아, 중남미 등이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음.